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 여기자 최은희



책 소개

일제의 만행이 기승을 부리던 1924년, 대학생 은희는 신문사에 입사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졸업을 일 년 앞두고 있었기에 망설여졌지만 일제 강점기를 겪는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신문 기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지요. 얼마 후, 은희는 남자 기자만 가득한 조선일보사에 여기자로서 첫발을 내디뎠어요.

'부인 견학단 수행기'로 첫 기사를 작성하고, '기자 변장 탐방'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은희는 남자 기자들도 취재하기 어려워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기자로서 입지를 다져 나갔어요. 어느 날, 은희는 독립군 잡는 귀신이라는 미와 경부가 사람들을 끌고 종로경찰서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몰래 뒤를 밟기 시작했지요. 과연 은희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특종을 쓸 수 있을까요?

더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사를 쓰며 여성의 사회 진출에 앞장섰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 여기자, 최은희를 만나 보세요.


역사의 책갈피에 숨어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 인물 도서관' 시리즈 여덟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 여기자 최은희》는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나라의 독립과 여성 인권 신장에 앞장섰던 '신문계의 패왕' 최은희의 이야기를 담은 인물·역사 동화입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며 은희는 왜 기자가 되었고 어떻게 취재하며 어떤 기사를 썼는지, 여성 언론인으로서 더 평등하고 진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최은희의 활약을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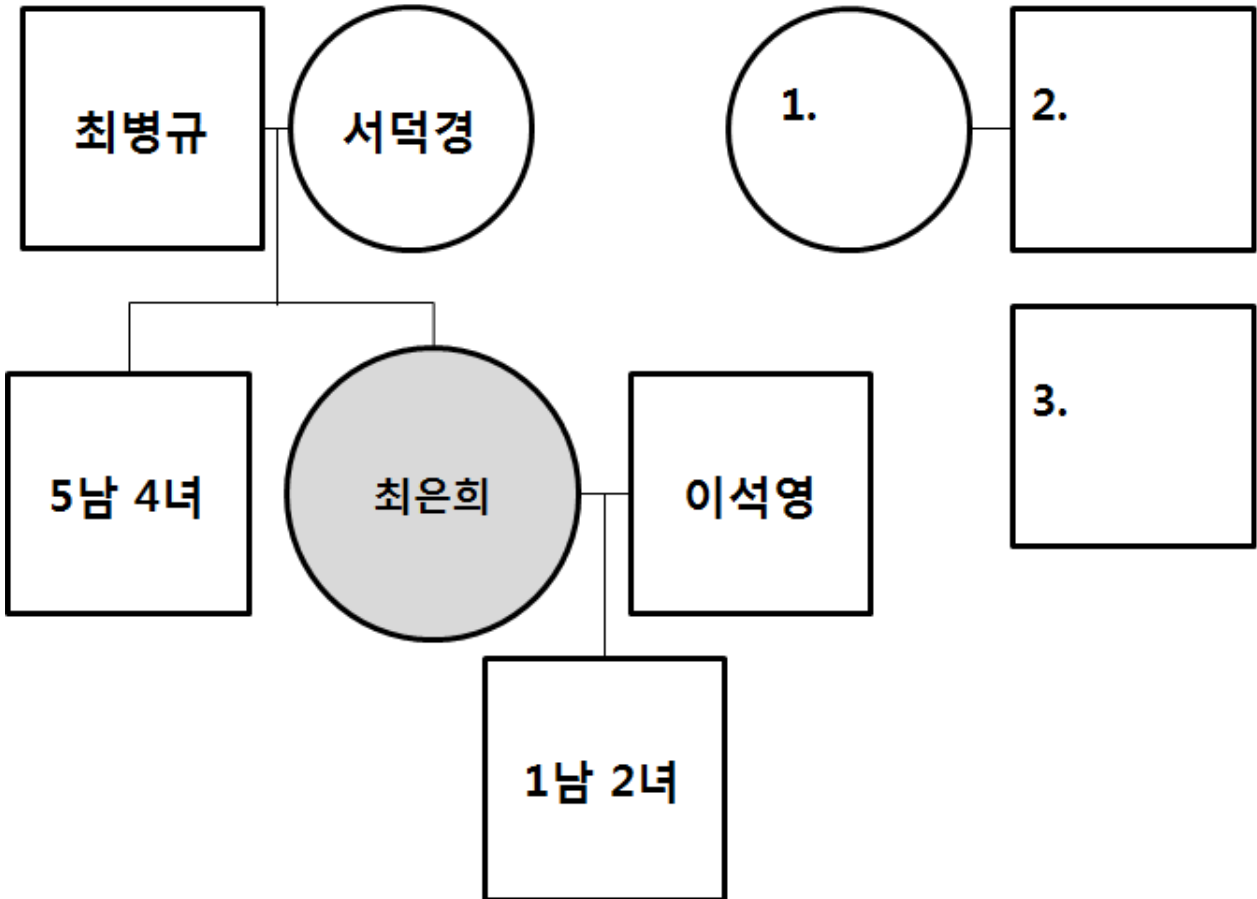
5-2	사회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2)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3)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6·25 전쟁

작품 키워드

#언론인 #민간_신문 #신문계의_패왕 #기자 #최은희


 <p>독서단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 여기자 최은희 -독서 전</p>	(인물 관계도)	초등학교
	글 : 한영미 그림 : 인디고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	학년 반 번
		이름 : _____

책을 읽기 전에 우리나라의 인물을 조사해서 다음 빈칸을 채워 봅시다.



[인물 설명]

1. 최은희의 학교 선배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개업 의사였어요.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문 병원인 영혜의원을 열었지요. 1920년대 초부터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등에 의학 지식과 관련된 글을 쓰기도 했고, 1924년 말에는 《동아일보》에서 정식 기자로 활동했어요.
2. 일제 강점기에 《무정》 등을 지은 소설가이자 언론인이예요. 조선일보사가 여기자를 뽑으려고 할 때 최은희를 추천했지요. 젊었을 때는 독립운동을 했지만 이후에 변절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되었어요. 호는 춘원이예요.
3. 대한제국의 제2대 황제이자 조선 제27대 마지막 임금이에요. 1926년 4월 25일, 세상을 떠나자 장례식 날짜에 맞추어 6·10 만세 운동이 일어났어요. 만세 운동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일본 경찰에 잡혀간 것을 최은희가 보도하기도 했지요.

 <p>독서단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 여기자 최은희 -독서 중</p>	<p>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 여기자 최은희 (날말 퍼즐)</p>	<p>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_____</p>
	<p>글 : 한영미 그림 : 인디고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p>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 여기자 최은희》를 읽고, 다음 날말 퍼즐을 완성해 봅시다.


①						⑤		⑥	
				④					
②									
			③			⑦			
⑧									
			⑨		⑪	⑫			⑬
								⑮	
							⑬		
		⑩				⑭			

가로

- ① 바퀴가 두 개 달린 수레로, 사람이 끌며 주로 사람을 태움. ‘은희가 선배를 ○○○에 태워 보내고…’
- ② 단체에 소속된 한 구성원. ‘앞으로 여자도 사회의 ○○(으)로 살아야 해.’
- ③ 부모나 조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또는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옷깃이나 소매 또는 가슴 등에 다는 표. ‘교복 치마로 만든 나비 ○○’
- ⑤ 예전에, 여자가 나들이할 때 얼굴을 보이지 않게 위해 머리와 몸 윗부분을 가리어 쓰던 치마. ‘아직도 ○○○○을/를 뒤집어쓰고 다니는 양반집 아씨들이 더 문제야.’
- ⑦ 옛날에 여기자를 뜻하는 말로, 남편이 있는 여자만 기자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비릇된 말.
- ⑧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게 새로 만든 길이라는 뜻으로, 일제 강점기였던 1900년대 초에 생긴 말.
- ⑩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구역. ‘동대문역 근처에도 ○○○이/가 있었다. 이곳의 집은 거의 산기슭에 굴을 파고 지은 것으로, 바닥에는 멍석을 깔고 벽과 지붕은 짚을 엮어 둘러친 형태였다.’
- ⑪ 임금이 즉위한 해에 붙이던 칭호. ‘일본 ○○○이/가 쓰인 졸업장은 받지 않을 겁니다.’
- ⑭ 어떤 사실이나 소식 따위를 알아내기 위하여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감. ‘변장 기자 ○○’
- ⑮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사람을 강제로 동원하여 부리던 일. ‘남편과 아들이 ○○(이)나 징병으로 끌려갔던 악몽’

세로

- ① 조선 시대와 대한 제국 때 왕과 황제, 왕의 직계 가족과 황제의 직계 가족의 장례일을 이르던 말. ‘고종의 ○○○’
- ④ 피의자나 경범죄를 지은 사람 등을 한때 가두어 두는 곳으로 각 경찰서에 있음. ‘○○○ 안에 잡혀 있는 숲들은 은희도 잘 알고 있는 천도교 잡지 《개벽》의 기자들이었다.’
- ⑥ 치마의 맨 위 허리에 둘러서 댄 부분. ‘설마 ○○○○에 끼워 놓은 봉투까지 채어 가지는 않겠지.’
- ⑧ 귀신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뜻으로, 그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없을 만큼 자유자재로 나타나고 사라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한 변장’
- ⑨ 일제 강점기에,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하 된 백성이라 하여 일본이 자국민을 이르던 말. ‘조선인은 ○○ ○○(으)로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라는 글이 신문에 버젓이 실렸다.’
- ⑫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임시로 발행하는 신문이나 잡지. ‘은희가 쓴 기사는 ○○(으)로 발행되어 … 뿌려졌다.’
- ⑬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에서 벗어난 일. ‘나라도 ○○되었으니 조선인도 자유로워지고 여자도 자유로워져야지.’
- ⑭ 사람을 골라서 씬. ‘편집부에서 여자 기자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p>독서단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 여기자 최은희 -독서 중</p>	(독서 퀴즈)	초등학교
	글 : 한영미 그림 : 인디고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	학년 반 번

1.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 여기자 최은희》를 읽고, 이야기 속 빈칸을 보기에서 찾아 시간 순으로 채워 보세요.

은희가 아버지에게 개화가 무엇인지 배우다.	→	은희가 노선형 선생님에게 역사 수업을 듣다.	→	①	→	은희가 일본 왕의 연호가 쓰인 졸업장을 받다.
						↓
은희가 토막촌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다.	←	은희가 부인 견학단 수행기 기사를 쓰다.	←	②	←	일본 유학생들 사이에서 은희가 유명해지다.
						↓
③	→	근우회에서 형견 단추를 만들다.	→	덕수궁에서 어머니날 행사가 열리다.	→	④

[보기]

㉠ 은희가 해주에 신흥여자상회를 열다.	㉡ 제1회 최은희 여기자상 시상식이 열리다.
㉢ 6·10 만세 운동을 준비하던 이들이 잡혀가다.	㉣ 은희가 독립운동 비밀 서클에 들어가다.
㉤ 은희가 소학교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다.	㉥ 은희가 행랑어머님으로 변장하고 나서다.
㉦ 조선일보사에서 여기자를 뽑다.	㉧ 은희가 녹막염에 걸려 기자 생활을 그만두다.

2. 계란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은희는 어떤 생각을 떠올렸나요? (11~12쪽)

1학년 경기는 ‘순가락에 달걀 얹어 돌아오기’였다. … 드디어 은희 차례가 되었다. 보통 달리기라면 몸집이 작은 은희는 꼴찌일 게 뻔했지만 이 경기는 달랐다. 계란을 떨어뜨리지 않고 달릴 수만 있다면 은희도 기대해 볼 만한 경기였다.

“차렷, 준비…….”

그 순간, 은희는 철봉에 매달릴 때 손바닥에 흠을 문히면 미끄럽지 않다는 것을 떠올렸다.

“땅!”

신호가 터졌고, 아이들이 힘껏 앞으로 뛰어나갔다. 뽀얀 모래 먼지 속에 계란이 보였다. 앞서간 아이들이 순가락에 계란을 올리고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뒤늦게 도착한 은희는 방금 전 생각했던 대로 순가락에 모래를 문혀 봤다.

‘모래가 순가락에 문을 리 없지.’

순간 순가락 오목한 곳에 모인 모래가 눈에 들어왔다. 은희의 머릿속이 반짝 빛났다.

‘_____’

효과는 좋았다.

(_____)

3. 다음 내용에서 은희와 이야기하는 은희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3쪽)

아버지가 이어 말했다.
 “세상이 변했어. 너는 언니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라.”
 은희는 아버지의 말이 공부를 더 시켜 주겠다는 말처럼 들렸다. 은희의 언니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열 살 넘은 처녀를 거리에 내놓을 수 없다는 집안 분위기 때문이었다. 대신 집 안에 차린 기예 강습소에서 한문과 붓글씨를 배웠다.
 “여자도 공부를 해야 하느니…….”
 은희는 아버지 말에 귀가 번쩍 띄었다. 마침 잘되었다 싶어 해주에 여학교가 있다는 말을 꺼냈다. 은희는 그동안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버르고 별렀다.
 “여자아이를 어찌…….”
 아버지가 은희의 눈길을 피하더니 말끝을 흐렸다.

4. 다음 내용을 읽고 당시의 상황을 **잘못** 이해한 사람을 고르세요. ……………() (29쪽)

“당번은 문간에 서서 망을 봐라. 이제 수업 시작하자.”
 노선형 선생님의 말에 학생들은 재빨리 일본 역사책 위에 국사책을 펼쳤다. 학생들은 몰래 듣는 국사 수업을 그 어떤 수업보다 진지하게 들었다. 가끔 찬물을 끼얹듯 일본 순사가 교실을 기웃거리서 탈이 있었지만.
 툭툭툭. 당번이 벽을 두드리면 노선형 선생님은 재빨리 칠판에 일본 글자로 일본 역사책 내용을 썼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재빨리 국사책을 서랍에 넣었다. 노선형 선생님과 학생들은 시치미를 뚝 떼고 일본 역사 수업을 했다.

- ① 승아 : 그 시절에는 우리 역사를 마음껏 공부하지 못했을 거야.
- ② 진형 : 일본 순사들은 학교 수업을 감시할 권한이 있었나 봐.
- ③ 민주 : 노선형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를 가르쳐 주고 싶어 했어.
- ④ 현우 : 당번이 일본 순사를 불러서 교실을 보게 했을 거야.
- ⑤ 유빈 : 학생들도 우리 역사를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

5. 은희는 상장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39~40쪽)

은희도 친구들과 함께 무릎 꿇고 앉아 고종이 세상을 떠난 슬픔을 함께했다.
 곡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은희는 궁지숙에게 은밀히 말했다.
 “우리, 고종 태왕 성복날에도 다 함께 모여서 슬픔을 나누자.”
 “당연하지. 하지만 상복은 고사하고 나비 상장 하나 만들 방법이 없으니 어찌지?”
 “방법은 만들면 되지. _____”

()

6. 다음 내용의 밑줄 친 단어와 뜻이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세요. ………() (42쪽)

“내일 거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지?”
 “응. 이건 우리 민족 대표 **①삼십삼인**이 작성한 독립 선언서야.”
 “우리 지금 읽어 봐도 돼?”
 “물론이지.”
 친구들은 은희가 건넨 독립 선언서를 받아 들고 한 문장씩 돌아가면서 읽었다.
 “우리는 우리 조선이 **②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뜻을 밝히며, **③자손만대에** 알려 **④민족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노라.”

[보기]

- ㉠ 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누려 나감.
- ㉡ 한 나라가 정치적으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함.
- ㉢ 3·1 운동 때에, 독립 선언서에 서명한 서른세 사람의 민족 대표
- ㉣ 오래도록 내려오는 여러 대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7. 다음 내용에 나오는 신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57쪽)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밀 모임은 오래가지 못했다. 은희와 동지들이 상하이에서 온 《○○○○》을 정리하던 날, 어떻게 알았는지 은희의 가게에 일본 순사들이 들이닥쳤다. 일본 순사들은 가게 안을 살살이 뒤지더니 《○○○○》 다발을 끄집어냈다. 은희는 이 일로 신흥여자상회를 연 지 일 년도 못 되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가게를 정리한 은희는 한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
 ‘어두운 나라의 앞날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사라지는 것만 같아.’

[국어사전]

[역사] 건양 원년(1896)에 독립 협회의 서재필, 윤치호가 창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 순 한글 신문으로 영자판과 함께 발간하여 처음에는 격일간으로 펴내던 것을 1898년 7월부터 매일 발간하다가 광무 3년(1899)에 폐간되었다.

()

8. 은희를 본 기자들은 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을까요? (69~70쪽)

1924년 10월 5일 오전 10시, 은희는 조선일보사 편집국 안으로 들어섰다. 편집국은 상상했던 것보다 많이 분주해 보였다. 어떤 기자는 기사 쓰기에 바빠 보이고, 또 어떤 기자는 자료를 뒤적거리고, 또 한쪽에서는 무슨 토론을 벌이는지 이야기하느라 정신없었다.
 은희를 보는 기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여자가 기자라니. 보나 마나 며칠 안가 사표를 쓰겠지.’라고 깔보는 생각이 훤히 드러났다. 은희에게 또 하나의 목표가 생기는 순간이었다.
 ‘앞으로 여자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야 해. 더 활발하고 대담해지자.’

9. 다음 내용을 읽고 밑줄 친 ‘주도면밀’과 의미가 같은 단어를 모두 고르세요. (74쪽)

“언니, 옆집에 어린아이 있다고 했죠?”
 “아이는 왜?”
 “그 아이를 업고 다닐까 해서요. 몇 시간 동안만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아이 업은 행랑어멈으로 나서겠다고?”
 “그 정도는 해야 안 들켜요. 남자 기자들은 바로 들통났잖아요.”
 “너의 주도면밀함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래, 어디로 가니 청진동 쪽으로 가면 나도 같이 나갈까? 마침 청진동 양장점에 한번 가 보려는데.”

[보기]

꼼꼼하다 / 소홀하다 / 물샷틈없다 / 느슨하다 / 허술하다
 미흡하다 / 영성하다 / 무심하다 / 빈틈없다 / 해이하다 / 무관심하다

()

10. 은희가 위험하고 어려운 현장을 취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90쪽)

은희는 그것만으로 만족하기에는 왠지 답답하고 목말랐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현실은 직접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보였다.
 ‘지금쯤 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뻗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자 일을 하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뛰어들어 직접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은희는 사회의 더욱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며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 사는 아편굴이나 투전판, 거지굴, 홍수 피해 현장 등을 취재했다. 또한 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별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11. 은희가 쓴 기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켰을까요? (98쪽)

“좀 전에 《개벽》 기자들이 종로경찰서로 잡혀 들어갔어요. 거사가 발각된 것 같아요.”
 요즘 기자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도는 정보에 따르면 또 한 번의 만세 운동이 계획되고 있었다. 순종의 인산일인 6월 10일을 기점으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만세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일본 경찰에게 발각된 모양이었다.
 민태원 국장은 전화기로 달려가 신문사에 연락했다. 사회부 기자, 각 부서 책임자들에게 신문사로 나오라는 지시를 내린 민태원 국장은 은희와 함께 종로경찰서로 갔다.
 “최 기자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바로 기사 써.”

12. 근우회 회원들이 만들어 판매한 물건은 무엇이었나요? (102쪽)

“활동비를 모을 수 있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역시 최은희 기자님! 어떤 생각이죠?”
 “○○ ○○을/를 만들어 파는 거예요.”
 “오, 모시 적삼이나 옥양목 적삼에 다는 ○○ ○○ 말이군요.”
 “네, 맞아요. 조선 사람치고 적삼 안 입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 ○○ ○○을/를 만들어 팔면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 ○○은/는 가늘게 자른 형겼을 이리저리 엮고 매듭지어 만드는 거라 우리들의 단결을 의미하기도 해요.”

()

13. 다음 내용에서 나오는 **오늘**은 며칠인가요? (109쪽)

드디어 우리 민족에게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일본 왕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아요.”
 아들이 라디오 앞으로 다가오며 은희에게 물었다.
 “일본 왕이 항복을 선언했어. 일본군이 조선 땅에서 물러난다는 소리야.”
 “그럼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오늘**이 며칠이지?”
 “○○○○년 ○월 ○○일이요.”
 “이날을 잊지 말아라. 우리나라가 독립된 날이다.”

()

14. 은희의 이름을 딴 이 상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25쪽)

1983년, 은희는 전 재산을 정리해 조선일보사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 그리고 그 돈을 기부하면서 ○○○ ○○○을/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바로 그 첫 번째 시상식이 며칠 전에 열렸다.

()

15. 다음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나는** 누구일까요? (132, 133쪽)

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기자예요. 1920년 7월, 《매일신보》에 여기자를 뽑는다는 공고가 나서 지원했지요. 지원 조건은 ‘이십 세 이상 삼십 세 이하, 보통고등학교 졸업 수준 이상으로 글쓰기에 취미가 있는, 남편이 있는 부인’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자를 부인 기자라고 불렀어요.
 기자가 되고 나서 <부인 기자의 활동>이라는 제목의 첫 기사를 시작으로 <금일 시대는 여자 교육 시대>, <위생에 관한 주의>, <부인의 부업 필요>, <조선 부인들의 아동 교육> 등 사십여 건의 기사를 썼어요. 주로 여성을 일깨우거나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썼지요. 약 1년 정도, 짧은 기간 동안 활동했지만 여성 인권 신장과 여성 계몽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했어요.

()



독서단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 여기자 **최은희**
(독서 토의·토론)
-독서 후 글 : 한영미 그림 : 인디고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_____

1. 일제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 것을 도운 일본인 끄나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 줘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은희가 2학년을 앞둔 2월 어느 날, 마을이 뒤숭숭했다. 종종 떠들썩하게 골목을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또 나타났다. 바로 일본인과 일본인 끄나풀이었다. 일본인 끄나풀은 조선 사람이면서 일본에 협조하여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다. ... 그들은 아버지의 서슬에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구시렁거리며 멀어져 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은희는 오랫동안 지켜봤다. 조선인이면서 일본 사람 흉내를 내는 사람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다. (15, 16쪽)

Blank space for student response to question 1.

2. 은희와 동무들은 신문 기사를 읽고 유복동을 도왔습니다. 기사를 읽은 후 새로운 생각을 가지거나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는지 또는 달라진 점이 있었는지 자신의 경험을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신문에 실린 한 편의 글이 큰 힘을 발휘했어.’
은희는 유복동과 문월선에 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종종 꺼내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유복동과 문월선이 조선같이 느껴졌다. 두 조선 여자를 구해 내는 것이 독립운동 같기도 했다. 은희는 신문에 이런 기사를 실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조선 사람들에게 은밀히 독립운동에 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함이 아닐까? 신문 기사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 같아.’ (37쪽)

Blank space for student response to question 2.

3. 신문, 방송, 통신, 잡지 등 언론 기관에서 일하려면 어떤 능력과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기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하면 좋을지 자신의 생각을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지난 자료 가지고 짜깁기해서 그럴싸하게 쓸 생각은 말고. 요즘 그런 기사들 때문에 골치인 것 알지? 사실도 아닌 것을 한껏 부풀려서 사람들 호기심이나 자극하는 기사는 안 돼.”
민태원 국장은 직접 취재해야 함을 강조하며 다시금 기자들을 돌려보았다. (85쪽)

Blank space for student response to question 3.



독서단원
-정답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 여기자 **최은희**
(인물 관계도, 낱말 퍼즐, 독서 퀴즈)

글 : 한영미 그림 : 인디고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_____

인물 관계도

1. 허영숙
2. 이광수
3. 순종

낱말 퍼즐

①인	력	거				⑤쓰	개	⑥치	마
산				④유				맛	
②일	원			치				말	
			③상	장		⑦부	인	기	자
⑧신	작	로							
출			⑨황		⑩연	⑫호			⑬재
귀			국			외		⑮징	용
물			신				⑬해		
		⑩빈	민	굴		⑭탐	방		

독서 퀴즈

1.
 - ① - ㉔ 은희가 독립운동 비밀 서클에 들어가다.
 - ② - ㉔ 조선일보사에서 여기자를 뽑다.
 - ③ - ㉔- 6·10 만세 운동을 준비하던 이들이 잡혀가다.
 - ④ - ㉔ 제1회 최은희 여기자상 시상식이 열린다.
2. 손가락으로 모래를 퍼 올리고 그 위에 계란을 얹었다.
3. 딸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여자아이를 공부시킨다는 게 고민되었다 등
4. ④ 현우 : 당번이 일본 순사를 불러서 교실을 보게 했을 거야.
5. 상장을 만들 수 있게 자기 교복 치마를 내놓았다.
6. ④ ㉔ ㉔ ㉔ ㉔ ㉔
7. 독립신문
8. 여자는 기자 일을 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 여자가 남자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해서 등
9. 꼼꼼하다. 물샐틈없다. 빈틈없다
10.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써서 여러 관심과 지원을 모으기 위해서 / 기사를 써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사회의 어두운 곳 이야기도 알려질 필요가 있어서 등
11.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잡혀갔다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서 일본 경찰이 독립운동을 함부로 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았다. / 몰랐던 6·10 만세 운동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다. 등
12. 형겅 단추
13. 1945년 8월 15일
14. 최은희 여기자상
15. 이각경